

직판 시스템 도입으로 유통센터 본래기능 회복한다

- 3월. 남부유통센터
- 4월. 계란가공공장
- 5월. 대구유통센터
- 6월. 영주유통센터
- 7월. 북부유통센터
- 8월. 목포유통센터
- 9월. 서울본점경제



▲ 경북 영주시 상망동 25-1번지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 영주유통센터 전경

지난 호에 이어 이달에는 영남권 계란유통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계농협 영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유통 실태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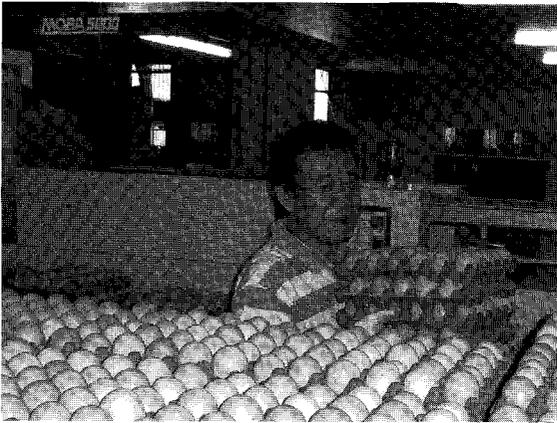
한국양계농협의 영주유통센터는 1994년 12월 12일 영주시 상망동 25-1번지에 10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사무실, 차량방역시설 등 500평 규모를 설립하였다. 선별 능력은 1일 8시간 가동할 때 35만개(모바5000)이고, 저장 능력은 350만개이다.

산지수집기능 잠재력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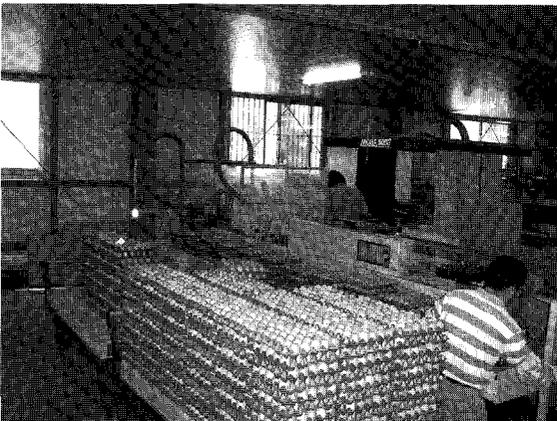
영주시는 전국 최대 계란생산지로 1일 약 400만개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나 영주시 인구가 13만명으로 계란소비량은 생산량의 3% 수준이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주지역 계란생산 물량의 절대량은 서울 및 타시도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유통센터에서 계란 취급량은 사료를 100% 전이 용하는 15개 조합원농가에서 1일 15~25만개로 최근 20만개 계란을 유통하고 있다.

▶ 황재선대리가 파란오란실금란을 별도 구분하는 선별기 라인에서 계란을 살피고 있다. 영주유통센터는 조합원 농가지대로 오판란 비율을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주유통센터에는 15개 조합원 농가에서 1일 25만개 계란이 출하되고 있다



▲ 경북 북부지역의 계란수집을 전담하고 있는 유통센터 내부 전경



▲ 지난 2월에 임명된 김종근 신임 유통센터 장장은 영주유통센터를 단순 수집기능만으로 조합원의 계란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직판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란 물류비 부담 보완 시급

영주유통센터는 별도의 상품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선별한 모든 계란은 수도권의 남부집하장에 계통출하하고, 나머지 물량은 계란상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조합원이 유통센터로 계란을 출하할 때 운송비는 농가 부담으로 하고 유통센터에서 계란판매시에는 결제방식에 따라 운송비 부담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계란이 체화되면 물류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맹점이 있는 상태이다.

영주지역 내 3개의 대규모 양계단지가 운영되고 있어 각종 질병이 발생 위험이 있어 영주유통센터는 방역시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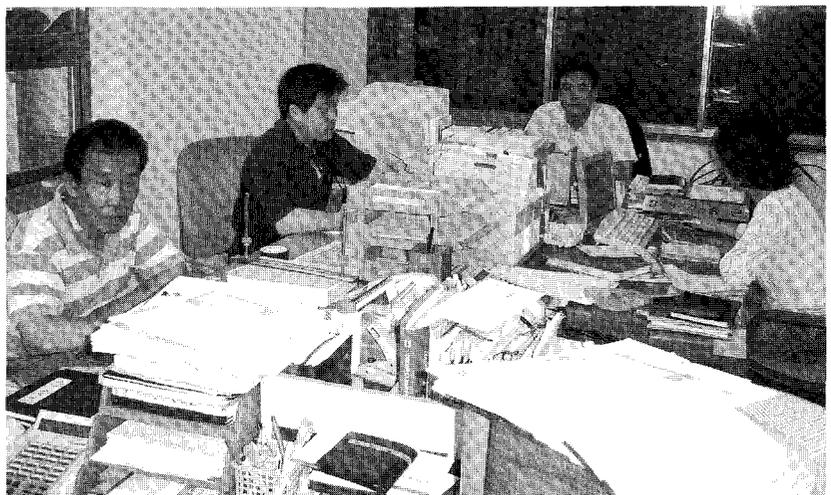
중점 강화하고 있다.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집하장으로 입하되는 모든 난좌는 출하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란이송차량은 농가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처 발굴 착수

영주집하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소비처에 계란을 직접 납품하는 대단위 소비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근 장장에 의하면 우선 무료급식업체에 납품권을 확보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계란소비촉진



▲ 유통센터 운영에 장장을 비롯하여 4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마케팅 전담 직원의 역할이 절실한 상태이다



▲ 정성진 영남본 부장과 김종근 장장이 비수기 계란 판로개척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행사를 주기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예정이다. 또한 영주시 인근의 안동, 상주, 울진, 원주 등의 중소마트나 할인점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상품란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감소추세의 유통센터 수익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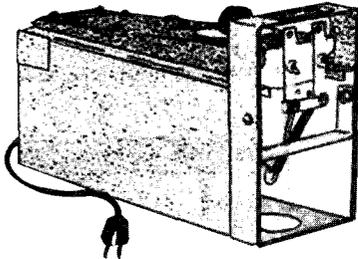


취재 | 김종준 과장
3kjj8@hanmail.net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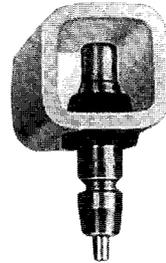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화 : (02)461-7887(주·아)
휴대폰 : 017 - 743 - 6887